

기술·가정의 교원양성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교사는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생산물이 아니다 —

박 명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운명이 교육의 질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고, 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방안이 나오고 있다. 6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시작된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7차 교육과정개정이 결정되어 2001년부터 드디어 7차 교육과정의 실시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앞서 준비되어있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 못해 현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 시행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공통 10대 교과중 하나인 기술·가정 교과의 시행을 놓고 기술·가정교과를 담당할 교사의 자격시비까지 일고 있고 이를 둘러싼 부전공 연수의 시행에 있어 물의를 빚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놓고 교육환경 속에서 상호 작용함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자원을 유치·선발·확보하여, 최고도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신입교사의 선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된 교사로 하여금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다른 일반 직업과 달리 교사직은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질과 적성은 장기간에 걸쳐 성취되고 사람을 키워내는 교사직에 있어서는 경력이 어떤 직종에서 보다 요구되는 직종이다. 교사의 능력발휘는 개인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이고, 교사 개인도 행복한 교직생활을 하고, 삶의 보람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최저수준의 직무수행으로 교직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할 수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교사로 봐도 불행하고 학교나 국가로 봐도 손실인 셈이다.

지난 6차 교육과정개정(95년 5월) 당시의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이 중요한 개혁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1)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개혁으로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임용 제도의 개선, 교원 연수의 강화, 교원의 연수기관 선택권 부여를 제시하고, (2) 능력 중심의 승진·보수 체계로 개선하여 일의 양과 어려움에 따른 차등 보수, (3) 교사의 연구환경과 효율적 근무조건 조성으로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교무실 사무자동화, 자율 출·퇴근제, 교장 명예퇴직제의 실시 방안이 제시되어, 그 중 일부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기하고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교원연수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교사의 복수전공제를 둘러싼 교원연수제도 및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가정 교과를 둘러싼 제도상의 문제와 이의 현실적 수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중등학교 교사 선발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가정교과 교사의 수요공급

가정 교과의 교사양성은 일제시대부터 제 5차 교육과정개정 시까지 중등 여학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존재함에 따라 1970년대 초까지는 몇 개의 가정교육과에서 교사를 배출하였으나 70년대 이후 가정학의 전문화 발전에 따라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뿐 아니라 가정대학의 일반학과와 일반 대학의 가정교직과정을 통해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과정을 통해 가정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엄청나게 양산되어있는 실정이다. 가정교과의 경우 60년대 후반 교육과정 개정시 당시의 국가정책으로 1인 1기술 갖기의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갑자기 추가된 기술교과부분을 여자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정교과 교사가 담당하도록 제도화시킴에 따라 급작스런 가정교과 교사의 수요급증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 시기 가정교과 교사에 대한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현재의 경우 과잉공급의 양상이 심각하게 되었다.

95년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시 남·여 모두에게 이수시키는 공통과목으로서 비로소 자리잡아감에도 불구하고 교과의 시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당시의 현직 가정교과 교사의 공급과잉부분과 적체현상이 발생하였다. 현직 가정교과 교사의 적체현상이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러 교과가 병렬적으로 통합되면서 기술·가정이란 교과로 묶여 버리게 됨에 따라 교사의 수급은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가정교과 교사 자격증을 많이 배출했던 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최근 10여년간은 가정대학의 교사자격증 이수자의 수도 상당히 제한을 두게 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의 가정교육과는 대부분 다른 학과로 전환시켜 가정교과 교사의 배출을 억제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가정교육과의 수는 16개교이며 이 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교사의 수도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가정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사 자격증 이수자 수와 교육대학원을 통해 이수하는 가정교과 교사 자격증 이수자의 수도 전반적으로 그 수가 줄고있는 실정이다. 가정교과 교사는 가정교육과에서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며 식품영양학, 의류학, 주거학, 가정관리학과등에서도 배출하기 때문에 가정이 수학이나, 국어처럼 단일 과목이 아니며 이미 통합적 성격을 띤 과목이며 교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전공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교원 임용제도는 자유경쟁의 논리 아래 교원 양성기관의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도 사립학교의 컨소시엄을 통해 교사를 선발 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고 각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선발방식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국·공립 중등학교의 교사는 매년 12월중에 실시되는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채용된다. 교원임용고사는 서울시, 광역시 및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실시하며 시·도 별로 매년 매학년도 교사 수급계획에 따라 일시, 장소, 고사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및 원서 제출절차 등에 관한 것을 시험시행 20일-30일 전에 공고한다.

교원 임용고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1차는 교육학 및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필기 시험을 실시하고, 2차는 논술 및 면접, 수업실기 능력평가 등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식은 교육학의 경우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전공과목은 주관식이다. 2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기 능력평가는 1999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시·도별 세부 계획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의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수업기자재 활용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합격자결정은 1차 시험의 성적과 대학 성적, 그리고 시·도별로 설정한 가산점등을 종합하여 모집 예정인원의 1.2배수를 선발한 뒤, 2차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시험의 출제 및 관리는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교원임용 공동 관리위원회 주관하에 1차 필기시험은 1997학년도부터는 위탁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시·도 교육청이 채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2차 논술 및 면접, 실기시험은 임용기관인 시·도 교육청별로 주관하

여 출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시험의 형태는 시·도 별로 다를 수 있다(소경희, 2000).

2) 기술교과 교사의 수요공급

원래 기술교과의 뿌리는 실업계의 농·공·상업과 산업일반이었다. 과거 산업화 사회의 진입시 인문계중심의 교육패턴에서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에서도 1인 1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할 당시 인문계학교 학생에게도 산업일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게 기술이란 교과가 탄생하였으며 초창기 이 기술교과의 담당 교사는 주로 공업교육학과 또는 농업교육학과등과 같은 실업교육학과등에서 배출하다가 후에 기술교육학과가 생긴지는 불과 20여년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기술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충남대학교와 교원대학교 뿐이다. 따라서 초기의 기술과목이 신설된 후 교사 부족시에는 교원양성소의 단기 프로그램 또는 관련학과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시험을 거쳐 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시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기술과목을 이수시켰는데 여학교의 경우 교사부족의 문제로 기술교과를 가정과 교사가 담당할 적이 있었으며 1970년초 당시에는 기술 3시간, 가정 3시간을 모두 가정과 교사가 담당하였었다. 그 후 4차 교육과정에서 개정될 당시 여학생의 기술교과는 명칭을 가사로 변경하였으며 이 때도 가사 교과는 가정과 교사가 모두 담당하였었다. 5차 교육과정개정시 중학교에서 일부 기술·가정 교과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실시해 본 적이 있으나 실패하였다. 이 때까지 남학교에서는 기술교과가 보통 교과로 여학교의 가정교과에 해당하는 대칭과목으로 이수하였으며 가사 교과와 실업(농·공·상·수산등)등이 대칭과목으로 선택되었다. 6차 교육과정개정당시 5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녀 모두에게 가정과 기술과목을 이수시키도록 개정하였는데 7차에 와서는 본 과목이 기술·가정으로 묶이게 되었다. 기술교과의 경우 기술교육과 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공업, 건축, 기술등 다양한 전공자가 기술교육 교사로 가르치고 있어 지리나 역사 또는 물리나 수학과 같은 단일 과목이 아니므로 이미 일종의 통합적 과목이며 교사도 다양한 전공자가 통합적 개념을 가지고 기술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3) 교사 임용제도의 문제점

매년 12월이 되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사자격증 취득자와 졸업생의 경우 그 해의 순위고사 임용인원발표를 보고 시험에 응하게되지만 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사실상 교사임용 고시라는 말처럼 1년, 2년 또는 몇 년동안 교사임용고시를 위해 도서관을 다니며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 가정교과의 경우 단 한명의 임용인원도 없는 경우도 있어 시험준비자의 경우 허탈하게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년도 내년에 임용인원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무조건 시험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참담하고 비효율적인 교사수급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가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지나치게 다원화되고 분산되어 교원 수급상 엄청난 불균형이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며 교원은 교원수급정책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수급정책에 따라 일반교직과정이 너무 양산되었다던가 사립사범대학의 축소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또는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도입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사양성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다.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오히려 교과내용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사범대학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일반대학교육과정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정체성이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사범대학을 해체하고 전문성과 질적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 교원 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교사양성을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결여가 생기게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떤 형태의 전문직 양성기관의 경우도 양성기관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법과대학의 경우 사법고시, 행정고시 준비를 위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경상대의 경우 회계사시험, 정법대의 경우 위무고시등을 위해 사범대학의 경우 교사임용고시를

위해 학생들은 대학의 수업보다는 학원의 요점정리식 시험대비 강의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양성기관의 모든 관심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함양보다는 선발시험에 기울이게 하는 양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가정교육과의 경우 실상 임용인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교사 임용시험을 보도록 추천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힌 경우의 차선택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순위고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1차의 경우 교육학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사양성기관의 특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시하고 사범대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오히려 말살하고 있었던 셈이다. 1997년도부터 실시한 교사임용제도에서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일부나마 반영하는 면접과 실기시험이 도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특히 가정교과의 경우 시·도 간의 기존 교사의 전출 전입편의 제공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경우 수년간 단 한명의 신규 임용이 없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정과 교육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도 되고 있다. 타 교과에 비해 가정과 교사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노령화됨에 따라 학생들과의 상호교류와 가정학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학문의 전달체계의 원활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Ⅲ. 기술·가정교과의 신설과 기술·가정담당 교과교사의 양성문제

1) 기술·가정 ! 신설교과인가 병합교과인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가정은 다양한 연령층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곳이며, 따라서 가정에는 문제상황과 갈등관계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의 구성원이 가정의 갈등관계와 문제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행복과 발전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육의 지향점이다. 가정과 교육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법칙, 원리 등을 추구하고 특히 물질,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추구하고, 교과

과정상의 교육내용은 교양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광복 직후부터 「가정 과목=여학생 교과, 실업 과목들 = 남학생 교과」로서 가정 과목 對 실업 과목이 같은 교과 군으로 묶이게 된 것이, 가정 과목을 실업 교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55년 이후 교육과정이 정립되면서, 가정 교과와 실업 교과는 각각의 성격보다는 성별로 동시에 실시할 방편으로, 나란히 연결고리를 가진 실업·가정이라는 억지의 명칭으로 묶여 버렸다. 그 후, 실업·가정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과와 가정과로 분리되어 잠시 독립 교과로 되었다가, 다시 통합, 제6차 교육과정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으로 완전히 통합되려 하고 있다. (대한가정학회, 인간과 생활환경, 1998)

기술 교육도 교육의 목적에 따라 두 분야 즉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으로서의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vocational education)으로서의 기술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교육은 보통 '기술 교육'으로 부르며 이 때의 기술 교육은 좁은 의미에서의 기술 교육이며 기술 교과 교육이라고도 부른다.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교육은 보통 '공업 교육'으로 부른다. 일반교육으로서의 기술교육은 인간의 본성 중에 조작적 요구가 있고 이것을 충족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기술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지식을 분류하여 보면 중요한 한 영역으로 실천적 지식(knowledge of practice)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교육으로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산업 사회라 불리우던 시대에 필요했던 접근 방식이었다.

기술 교과 교육(technology education)은 실천적 지식 체계에 터 한 일반 교육으로서 실천적 학습 활동(체험 활동)을 통하여 기술(Technology)적 지식, 능력, 태도를 기르는 교과 교육이다. 기술 교육에서는 다른 교육 분야와는 달리 지식의 이해 정도뿐만 아니라 사고력, 판단력, 만들기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실천적인 태도와 기술적인 활동의 체험 즉 실험·실습 활동이 매우 중요시된다.

이상의 가정교과와 기술교과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기술의 습득을 통해 사고력, 판단력, 만들기 능력, 문제해결능력이 강조되는 실천적이고 실험

실습활동이 중요한 점에서는 같으나 가정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표는 기술과의 목표와는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전혀 다른 별개의 교과를 물리적으로 병합을 할 수는 있어도 화학적으로 통합을 할 수는 없다.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 (1955년-1997년)는 '가정'과 '기술'은 분리된 과목이었고 공통점이라고는 가정은 1차에서 5차 교육과정까지는 여학생이 이수하였고, 기술 및 산업은 주로 남학생에게 이수시킨 과목이었다는 점이다. 이 과목들의 담당교사는 '가정'은 '가정과 교사'가 '기술'은 '기술과 교사'가 각각 담당하여 지도하여 왔으며 학문적 배경에 있어서도 기술과 가정은 전혀 다른 교과목이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목의 수를 10개로 제한한다는 총론의 원칙에 따라 「기술·가정」을 교과목명으로 하여 통합,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기술·가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5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실과로 2시간, 7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기술·가정」으로 2·3·3시간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6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산업 과목과 가정 과목을 통합교과목의 형태로 빌린 병합의 형태로 하여, 두 개의 교과서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합본한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는 '이 두 교과목의 성격상 통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는가'였다. 기술과는 기술학에 근거한 지식 체계의 교과이고, 가정과는 가정학에 근거한 지식 체계의 교과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학문 체계가 통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논리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교과를 완전하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두 교과목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 상호 관련성이 밝혀진 뒤에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학의 어떤 측면과 가정학의 어떤 측면은 통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과 가정이 하나의 독특한 형태의 지식 체계로 통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는 통합이라기보다는 병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두 교과목의 학문 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지도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병합하였고, 극히 일부분 통합이 가능한 부분만 통합하였다(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99). 7차 교육과정 입안에 참여했던 교수진이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도 통합이 아닌 병합으로 교과서 내용도 50:50으로 구성하였고, 현장에서의 운영도 기술 교사는 기술 영역을, 가정 교사는 가정 영역을 지도하는 것으로 입안 구성하였다.

2) 기술·가정의 교과담당은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양성되는가?

기술·가정교과는 내용적으로는 병합의 형태를 취하였지만 법적으로는 통합교과인 셈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신설된 「기술·가정」 교과 교육을 위한 교원자격증이 「기술」(11-12학년 선택과목), 「가정」(11-12학년 선택과목) 과 「기술·가정」(7-10학년 필수과목)의 3가지 교사자격으로 결정되었다(교육부고시 <2000-1호, 2000. 1. 28>). 이어 「기술·가정」교과목의 교원양성을 위해 각 대학의 기존 「가정 교육과」에서 「가정」과 「기술·가정」을, 「기술교육과」에서 「기술」과 「기술·가정」 중복 표시하도록 하였다(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추진 요령안내(교육부교양 81834-125, 2000. 2. 15)).

이처럼 서로 다른 교과를 병렬로 연결하여 「기술·가정」교과라는 명칭으로 남녀 모두에게 이수하도록 하는 발상은 사실상 일본의 교육과정을 모델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초부터 기술·가정이란 교과목을 교과목의 수를 많게 하지 않을 명목으로 기술·가정으로 운영해 왔으나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가 기술·가정교사자격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부분은 기술 교사가, 가정 부분은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팀 티칭의 형식을 취하고 학생은 이 두 부분을 모두 이수하는 형태로 몇십년간 운영해 왔다. 최근 일본의 가정과 교육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일본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서 기술·가정에서 다루었던 가정교과목의 기술적 영역보다는 가정교과목의 가정경영 및 가족관계영역의 확장 필요성이 강화되어 기존의 「기술·가정」교과를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교육부에서는 「기

술·가정' 교과를 신설교과로 유권 해석하여 '기술·가정' 표시과목 자격증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중등학교의 '가정교사'와 '기술교사'는 모두 "기술·가정"을 가르칠 수 없는 부적격자이며 팀티칭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모든 기술교사와 가정교사로 하여금 방학 중 '부전공 자격연수'라는 단기 연수(180시간)를 통해 '기술·가정'을 이수하도록 증용하고 있다.

IV. 기존 교사 연수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교육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해 왔던 교육개혁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실천방안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정책에 담고 있다.

6차 교육과정 개정 시 제시되었던 중등교육개혁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목표는 사실상 교사수급의 문제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7차에서는 축소 조정되었다. 6차 개정 당시의 가정교육계에서 제시한 중학교 수준에서는 남녀 함께 필수적으로 가정·기술을 이수하는 대신 고등학교에서는 가정의 다양한 하위 단위 교과, 예를 들면 식품 영양, 의류, 주거, 소비자, 가정 경영, 아동, 가족등의 교과가 개설되어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박명희, 1995)은 무산되었으며 앞의 제안이 가능할 경우 유사한 교과를 2-3가지 복수로 전공하여 가르칠 수 있는 복수전공 교사의 제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엉뚱하게도 관련이 없는 교과끼리의 복수전공이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미국의 경우 교사가 복수전공을 하여 2-3과목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수학의 경우 산수, 기하, 대수 등의 세분화된 교과를 몇 가지 복수로 가르친다는 의미이지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처럼 미술 담당 교사가 국어나 수학을 21학점의 부실한 부전공 연수를 이수한 후 학생들에게 국어교사로서 가르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미국의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부터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어 현재 한국의 대학처럼 자신이 스스로 시간표를 편성하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춘 강좌를 학생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개설되는 과목은 100-18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된다. 물론 소형의 학교의 경우는

모두 개설할 능력이 없을 경우 주변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 개설된 과목을 학생의 수준에 맞춰 수강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경우 교사는 한국의 대학처럼 한 학기에 유사한 2개의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3개의 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유사한 과목(공통 사회와 지리라던가, 공통과학과 물리 정도)이며 영어의 경우 듣기와 쓰기, 또는 말하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를 복수로 가르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20-30개의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과목중에서 미술교사가 수학을 복수전공 하거나 건축, 기계공학 교사가 기술·가정을 복수전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1995년 교육개혁을 추진할 당시 앞으로 각급 학교의 소규모화 추세와 중등학교 선택교과제가 도입된다면 순회교사, 복수전공교사, 시간제 교사제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선택교과의 도입의지는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실시되어야 하는 2001년을 목전에 두고도 그다지 변화되어있지 않다. 각급 학교의 소규모화 추세는 여전히 담보상태이며 또 선택교과제의 도입은 그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국민 공통교과라는 이름아래 10대 교과의 필수화 과정에서 기술·가정의 경우만 부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해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가정교과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통합교과로서의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의 경우는 기존의 과학, 사회 교사의 경우 교사자격증의 명칭을 현직 교사에게는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부령제767호 일부개정 2000. 06. 01.)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기술·가정교과만은 예외로 신설교과로 해석하고 있고 검정령 시행규칙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소규모화 되어 있는 도서 벽지 학교라던가, 교사의 전담시간이 적절치 않을 경우 기술과 가정 부분을 일부 담당할 경우도 있으며 이미 6차 교육과정 실시당시에 남자 중학교의 경우 가정교사의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서 기술교사가 가정교과를 심화 연수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왔으며 반대로 여자 중학교의 경우 가정교사가 기술 교과를 심화 연수 하여 기술 부분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 이미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살려 팀

티칭을 하는 것이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모두에게 적절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팀 티칭의 불가능을 주장하는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 위주의 사고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기술·가정교과의 문제에서 교육부 장관의 답변은 "팀티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서는 시·도 교육청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한다. 교육과 관련된 법이란 최종의 목적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나 법은 수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바람직 한 방향과는 상반되는 법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가정이라는 교과의 교사 자격증을 이수시키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현재 현장교사에게 "기술·가정" 표시과목의 단기간(180시간, 11학점)연수를 통해 잘못된 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부전공 연수란 21학점의 교과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제16812호 일부개정 2000. 05. 16.)에 명시되어 있다.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8·11]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학문의 체계와 성격이 전혀 다른 두교과의 내용을 단기간의 연수만으로 습득하여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전공 연수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되며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장의 문제를 최대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술·가정이란 교과자체를 통합적 교과로 간주하려는 의도로 기술·가정의 부전공 연수를 기술 11학점, 가정 11학점으로 하여 부전공 연수를 실시

하는 것은 '교사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동이다. 2000년 여름 교사들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반발하자 반쪽짜리 연수만을 실시하여 기술교사는 11학점의 가정교과 연수를 가정교사는 11학점의 기술교과 연수만으로 기술·가정의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수월성만을 제고하는 처사이다. 11학점의 반쪽 연수 과목에 있어서도 각 시·도 교육청은 각과 교육론 또는 각과 교수방법등의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우선 배정토록 하였으며 실제에 있어서 전공분야의 과목은 몇 개의 분야별로 거의 1-2학점에 불과한 실정이다.

V. 논의 및 결론

'기술·가정' 교과가 7차 교육과정에서 운영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담당 교사 양성에 따른 문제이다. 불가피하게 두 개의 교과가 물리적으로 병합된 것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연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기술·가정'교과를 새로운 신설교과로 해석하여 기술 교사와 가정 교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기술·가정'교과를 새로운 신설교과로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월 28일에 수정고시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은 [별표1]에 표시과목을 '기술', '가정', '기술·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 규칙에 의해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기술·가정이 통합교과로 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전통적으로 가정학에서 출발한 가정교과의 교사배출은 전국 16개의 가정교육과와 가정대학 그리고 교육대학원등에서 배출되고 있으나 기술교육과는 전국에 단 2개뿐이다. 교육부는 이점에 있어서도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의 학과를 변경할 수밖에 없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차후의 '기술·가정' 교사 수급을 위하여 기술교육과와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에게 '기술·가정'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여 '기술·가정' 표시과목의 자격증을 부여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전국에 가정교육과와 기술교육과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교원대학교 뿐이다. 따라서 가정교육과만 있는 대

학에서는 '기술·가정' 복수전공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기술교육과만 있는 대학 (충남대학교)에서도 '기술·가정' 복수전공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일부 가정교육과에서 최근에 연계전공 형식의 기술·가정교과의 부전공을 시도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과대학, 농과대학에 등에 이미 설정된 과목중에 몇 과목을 이수하는 형태이므로 기술·가정교과에 적합한 과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방법으로 대학에서 기술·가정 교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질적인 수준의 확보를 할 수 없다.

가정교과 교사의 적체로 인해 기존의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졸업생들은 이런 부전공을 이수할 기회조차 없으므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어 채용의 형평성이 없어지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술·가정교과는 물리적 병합을 한 교과이므로 이는 원상복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교과인 것은 확실하지만 10대 공통 교과안에 포함되기 위해 교과 특성 발살하는 기술·가정교과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사는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생산물이 아니다. 어떤 전공교과의 교사라 하면 그 학문의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고 학문의 구조를 학습한 후 이러한 학문의 내용을 내면화한 후 이를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녹여내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정편의 위주의 교과목을 급조하여 1-2개월의 급조된 연수를 통해 교과 담당 교사를 급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장기적으로 기술·가정 교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기술·가정교과의 교사자격증은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자격 시행령 검정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 기술·가정교과가 분리되면 가정은 가정교사가 기술은 기술교사가 가르쳐야 한다.

-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술·가정의 부전공 연수는 철폐되어야 한다. 11 학점만을 이수한 부전공 연수는 불가하며 불법이기도 하다.

- 현재 소규모학교나 복수전공 교사제를 위해서는 기술 교사는 가정 심화연수를 가정 교사는 기술 심화 연수를 통해 기술·가정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 현실적으로 내년에 실시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의 기술·가정교과는 팀 티칭으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 교사 임용고시의 공고는 교사의 수요예측을 통해 장기적으로 그 수요를 측정해야 하며 이를 1년전에 고시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애(1997). 제 7차 가정과 교육과정의 방향 모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_____. 제 9권 제 1호
- 대한 가정학회 (1997) : 인간환경과 생활. 교문사
- 박명희 (1995) 교원양성정책의 문제점.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7권 1호
- 윤인경(1997). 교육정책과 가정과 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 9권 제1호
- 교육개혁위원회(1995). 제2차 대통령 보고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 교육개혁위원회(1995). 보도자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참고 설명자료
- 한옥수(1994). '일본의 가정과 교육' 가정과 교육학회지 6권 1호
- 박덕규(2000). 초·중등학교의 교사 수급 전망.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 소경희(2000). 중등 학교 교사 선발 제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 정진곤(2000). 교사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 박덕규(2000). 외국학교의 교사 선발 제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광장 2000년 9·10
- <http://homelove.web.edunet4u.net>
- <http://www.moe.go.kr/>
- 교원자격검정령
- [대통령령제16812호 일부개정 2000. 05. 16.]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부령제767호 일부개정 2000. 06. 01.]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99